

북구,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맞손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역 금융기관과 맞손 잡고 포용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 ▲북구 지역 새마을금고(11개소) ▲광주문화신협 등 13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업무 협

약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통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한 북구의 소상공인 우대금리 적금상품 출시 협조 요청에 지역 금융기관이 적극 호응해 2년 연속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출시된 소상공인 우대 금융상품은 '북구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이고 적용금리는 기본 3.5%에 북구와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우대금리 각 1.5%를 더해 연

6.5% 금리가 제공된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적금은 1인당 1계좌 조건 아래 가입 기간은 1년 만기이며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 정액으로 가입자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금 만기 시 최대 62억 원의 소상공인 생활자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북구는 기대하고 있다.

판매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북구 지역 11개 새마을금고 또는 광주문화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구 정책이 소상공인 생업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남구,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약 및 비계약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태 기자

서구,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초기상담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범위 확대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AI 초기상담은 위기정보 입수 1인 가구 및 소재미확인 대상자 등 6000여 가구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본인확인과 위기상황 파악 ▲육구상황 파악 ▲심층상담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초기 상담직원들의 업무를 지원, 직원들의 역량을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에 집중해 위기가구에 신속한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화내용, 상담결과 등 AI 초기상담 결과는 복지전담관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AI활용 초기상담 시스템 운영 시범 지자체로서 추후 전국 운영을 대비한 멘토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위기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광산구, 민방위 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1~2년 차 대원 대상 4시간의 집합교육이 지난해 3년 만에 재개됐다. 또 3~4년 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런 체계로 구 소속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4월 11일~7월 12일 △8월 12일~9월 27일 △10월 21일~12월 6일 등 총 3회에 걸쳐 시행한다.

집합교육은 해당 대원에게 일차, 장소 등을 포함한 전자 통지를 발송해 참여를 독려한다. 사이버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24시간 언제든지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받으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재 안전, 응급처치 등 민방위대원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은 기본교육과 실습 훈련으로 이뤄지고, 사이버교육은 교육 동영상을 끝까지 본 뒤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해야 교육이 완료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3982)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현업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요인 조사와는 다르게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구청 제공

동구,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현업 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 요인 조사와는 다르게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따라 동구는 17개 부서 내 31개 작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해 예비조사를 실시 중이다.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전체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작업장 상황조사와 모바일 설문조사를 병

행해 작업환경과 조건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택 청장은 "이번 조사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의 유해 요인을 분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직원 건강은 물론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했다"면서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공정고과 상식